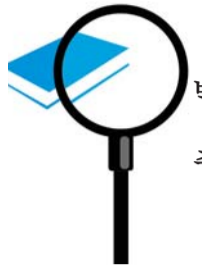


# 신화를 그린 시대의 명화,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신화의 비밀, 명화의 비밀

제라르 드니즈 지음, 배유선 옮김

예로부터 구전 서사는 문화와 지혜의 보고였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 후세대에겐 앞선 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전수했다. 이야기는 청자에 따라 다양하게 접연되거나 윤색됨으로써 새로운 서사를 잉태한다.



전승되는 이야기 가운데 단연 최고의 자산은 신화다. 씨줄과 날줄이 엮이듯 신과 인간, 자연이라는 세 범주가 풍성하게 교직된 테라 드라마틱하면서도 다채롭다. 그 신화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동북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인도, 이집트, 아프리카 등에도 풍성한 신화가 있는데 말이다. 그것은 그리스 로마신화가 끊임없이 후세대에겐 영감과 지혜와 예술의 상상력을 주기 때문이다. 일찍이 '아서왕 이야기'의 저자 토마스

볼핀치는 "신화란 승배의 대상이 아니라 예술과 문학의 기준이다"고 정의했다. 달리 말해 신화는 서구 '인문학의 열쇠'라는 의미다. 신화는 시인과 화가 뿐 아니라 인문학 분야 예술가와 학자들에게 원천소스를 제공했다.

그렇다면 당대의 천재들은 왜 반복해서 그리스 신화를 그렸을까? 예술사학자이자 문화유산 전문가인 제라르 드니즈가 펴낸 '우리가 지금껏 몰랐던 신화의 비밀, 명화의 비밀'은 시대와 신화가 만나 펼쳐진 화폭을 면밀히 들여다본다.

책에는 우주 창조부터 고대 서사시, 태초의 신들부터 호메로스와 베르길리우스가 노래한 영웅들까지 아우른다. 또한 시대의 걸작을 신화와 예술이라는 두 키워드로 분석한다. 저자의 해석을 따라가다 보면 명화를 그린 화가의 의도와 문명의 접점을 만날 수 있다.

귀스타프 모로의 작품 '프로메테우스'는 "영웅은 굴하지 않는다", "강인한 구원자의 초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제우스를 속여 불을 훔친 프로메테우스는 발가벗겨진 채 카우카수스 산 절벽에 묶여진다. 그에게 가해진 형벌은 낮이면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고 밤이면 간이 돌아오는 것이었다. 가혹한 고통에도 프로메테우스는 물러서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저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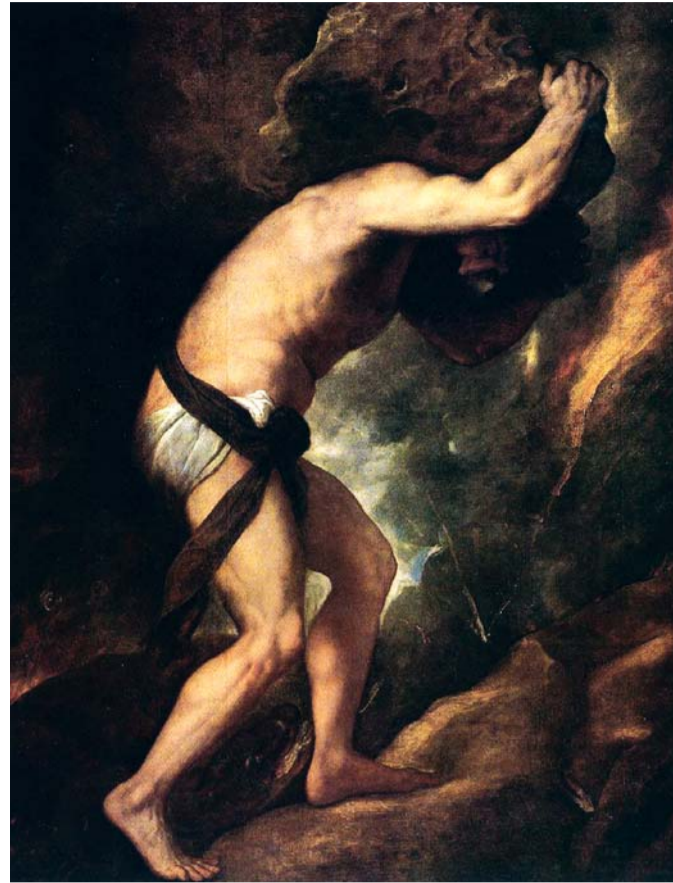
귀스타프 모로의 그림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고결한 맹금류는 대머리독수리로 묘사돼 있다. 천하의 맹금류 왕인 독수리가 시체를 쪼아 먹는 모습은 신들의 비열함을



베로네세 '레다와 백조'

비웃는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또한 프로메테우스 발 아래에는 죽은 독수리가 놓여 있다.

"전경에 놓인 독수리 시체는 프로메테우스아말로 최후의 승자라고 똑똑히 말한다... 프로메테우스는 신이고 그를 쪼는 독수리는



티치아노 베셀리오 '시시포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여서 헬라클레스가 그를 해방시키려할 때까지 몇 번이고 다른 새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베로네세의 걸작으로 꼽히는 '레다와 백조'는 자유분방한 삶을 "폭발적인 색채미"로 표현했다. 이 신화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백조의 모습으로 변한 제우스가 레다와 사랑을 나누었고, 이후 레다의 남편 틸다레오스도 그날 밤 그녀와 잠자리를 가졌다. 이후 레다는 제우스에게서 폴리데우케스와 헬레네를 낳았고, 남편에게서는 클리타임네스트라와 타스토르를 낳았다.

이 그림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당시 베네치아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허락했다고 볼 수 있다. 베로네세는 르네상스 작가지만 이 그림을 완성할 즈음에는 유럽 전역에 바로크 열풍이 불었다.

"신성한 혼인관계를 저버리고 이교의 신 제우스와 육욕에 몰입하는 묘사를 보나 자유분방한 삶의 즐거움을 표현한 폭발적인 색채미로 보나 사건의 내부에서 느껴지는 영감으로 보나 베네치아 미술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작품이다. 이후 한동안 잠잠해질 고대의 신들이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는 듯하다."

티치아노 베셀리오의 '시시포스'는 바위를 지고 산을 오르는 사내의 모습을 그렸다. 오늘날에는 운명을 거부하는 현대적 영웅으로 묘사되곤 하지만 사실은 영악한 행위로 형벌을 받는 이의 모습을 상징한다. 아이올로스의 아들 시시포스는 신들 앞에 교만하고 거짓말을 일삼다 하계로 떨어진다. 큰 바위를 산 정상까지 올렸다가 반대로 떨어뜨리는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저자는 그림의 의미는 "인간 조건에 부조리함이 아니다"며 "함부로 권력에 대항하면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책은 명화가 주는 경이로움보다 점차 신화를 읽는 눈이 점차 바뀌어왔음을 보여준다. 걸작이 신화의 보조 자료가 아닌 풍요롭고 지적인 삶을 위한 흥미로운 그림이라는 것을 말이다.

<생각의길> 2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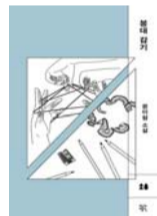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붕대 감기

## 운이형 지음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하며 한국 문학의 주목 받는 작가 가운데 한 명으로 떠오른 운이형이 신작 소설 '붕대 감기'를 펴냈다.

작가는 2007년 첫 번째 소설집 '셋을 위한 왈츠'를 발간한 이후 세 권의 소설집과 한 권의 장편을 내며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소설 '붕대 감기'는 '우정'이라는 관계 안에서 역동적으로 펼쳐지는 내밀한 감정을 첨예한 문제의식과 정직한 문체로 풀어낸 작품이다. 소설은 다양한 여성들의 개별적인 서사가 연쇄적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은정은 영화 홍보기획사에서 근무하며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흔히 말하는 워킹맘이다. 8개월 전 아들이 수련회에서 눈썰매를 타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버린다. 8개월이라는 시간은 은화한 남편을 비롯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무너져 내리게 만든다. 그녀는 무참한 현실에 처한 자신에게 누구도 안부 한 번 묻지 않는다는 사실에 접하며 "찾지 않는 혼잣말과 육살"을 뱉어낸다.

그러는 중에도 누군가 자신을 응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인 실장인 해미는 8개월 전 염색 이후로 발길이 없는 은정을 격정한다. 그러나 은정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선 기대와 실망을 느끼게 되고, 어떤 일을 계기로 가까스로 마음이 회복되는 과정을 겪는다.

저자는 "마음을 끝까지 열어 보이는 일은 사실 그다지 아름답지도 않고 무참하고 누추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더 많지만 실망 뒤에 더 단단해지는 신뢰를 지켜보는 일도 끝까지 헤아리려 애쓰는 마음을 받아본 일도 있는 나는 다음을 알면서도 이어지는 관계의 꿈을 버릴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작가정신> 1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정조의 말

## 정창권 지음

조선시대 개혁군주를 꼽으라면 정조를 빼놓을 수 없다. 정조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늘 배움을 가까이 했다.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썼다.

정조의 이러한 면모가 잘 드러난 어록집이 '일득록'이다. 여기에는 정조의 문집 '홍재전서' (180권 100책)의 161권부터 178권에 들어 있는 것으로 모두 18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조의 어록집에서 가려 뽑은 글을 한데 엮은 책이 발간됐다. 정창권 고려대 문화창의학부 초빙교수가 펴낸 '정조의 말'은 "나를 나답게 하는 공부"이자 평소 애 들은 정조의 언행을 기록한 책이다.

"배움이란 남마다 일상적으로 실행하는 데에 있다. 자기 자신에게는 행동하고 멈추고 말하고 침묵하는 것이고, 집 안에서는 아버지와 형제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며, 나라에서는 일을 책임자에게 맡기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며, 책에서는 글을 읽고 이치를 궁리하는 것이다. 이처럼 간단하고 가까운 것을 버려두고 다시 어디에서 배움을 찾는단 말인가."

책에는 '마음공부', '오늘 하루', '나다운 나', '배운다는 것', '온전한 삶' 등을 주제로 주옥 같은 말들이 담겨 있다. 이번 책의 토대가 된 '일득록'은 '정조의 자기 수양과 학문 통치를 하나로 통합해서 보는 수기치인적 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 어록집'이다.

새해가 시작되기도 벌써 중순이 다 가고 있다. 정조의 다음과 같은 말은 다시 시작할 힘을 준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마무리가 있어야 한다. 나는 비록 보통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마무리를 구한다. 심지어 글을 쓰거나 오락하는 것까지도 시작만 있고 마무리가 없는 적은 없다."

<이디북스> 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나혼자 음악회

## 이현모 지음

영화나 CF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선율은 참 아름답고 근사하다. 하지만 연주회나 오디오로 듣는 클래식은 왜 그렇게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걸까? 큰 마음 먹고 연주회를 찾지만 불편하게 앉아 있다가 하품만하고 나오기 십상이다. 또 클래식 좀 배워볼까 싶어 책을 펴보지만 전문 용어와 이론들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 나는 클라넷(클래식 알지 못하는 사람)인가봐' 하며 푸념 끝에 책을 덮고 만다.

말게만 느껴지는 클래식에 누구나 쉽게 빠져들게 하는 '나혼자 음악회'가 출간됐다.

'인생을 바꾸는 음악의 힘', '하이엔드 오디오 가이드', '클래식 사용설명서' 등을 출간한 저자 이현모는 지금까지 누구나 클래식과 쉽게 친해질 수 있도록 강의도 하고 글도 써 왔다. 그는 수백 년 간 전해져온 클래식 명곡을 제대로 즐기려면 작곡가의 삶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루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음악회 속 클래식 명곡들을 나만의 공간으로 불러내 작곡가들의 사생활부터 명곡 속에 숨겨 놓은 깊은 이야기를 끄집어낸다.

저자는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가 사실은 음악계와 자신까지 통렬히 풍자한 곡이었다는 입장이다. 복수극으로만 알았던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 속에 프랑스 혁명 이야기가 감춰져있으며, 또 차이코프스키의 열렬한 여성 후원자가 '교향곡 5번'을 듣자마자 질투심에서 맹비난을 퍼부은 사실까지 이면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밖에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로시니 '빌헬름 텔 서곡',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관련 에피소드를 담았다.

<다올림> 1만6000원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이닝샷**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0년 1월호

12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우리 동네에는 예술가가 산다**  
예술인마을과 열린 스튜디오

- 일상을 예술처럼, 여기가 예술인 마을
- 광주 예술의 거리, 아티스트들의 등지로
- 예술플랫폼으로 열린 작가 스튜디오
- 제주 저지예술인마을을 가다

트렌드 읽기  
**2020** 업글인간, 오팔세대  
패어플레이어를 주목하라

클릭, 문화현장③  
제주 빛의 벵커  
클림트 감동 있는 반 고흐전

아시아 문화 원류를 찾아서-네팔 쉼  
보다나트 사원  
페와 호수의 전설

기획-도시 디자인, 행복한 도시경관의 완성-① 프롤로그  
공간에 생기 불어넣는  
도시디자인 탐구 시작

예향 초대석  
**광주광역시 초대 총괄 건축가 함인선**  
"광주 대표도서관을 명품건축으로"

문학이 숨쉬는 문학관을 찾아서④  
호방한 기질과 감성 담은 시  
전남 나주 백옥 문학관

한국영화 100년-남도시네마 선택 7  
한 세기 남도영화,  
한국적 정서 담았다

김정운의 '바우하우스 이야기' ⑥  
바우하우스 예술교육의  
양 날개 '형태'와 '재료'

전시 화제  
'순장섭-역사가 된 풍경'전

황인의 '예술가의 한 끼' ①  
화가 천경자의 집밥

예향이 만난 이 사람  
월드라마로 여수 홍보하는 여수시청 김상욱  
그라운드와 차별 고한 KIA타이거즈 윤석민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⑩  
아이들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본다

문화 트렌드  
국악 크로스오버 바람  
신한류가 몰아친다